

# 민주 “쌍특검·탄핵안 처리”... 연말 정국 전운 고조

### ‘김건희·50억 클럽’ 특검·이동관 방통위장 탄핵 정국회내 처리 방침 12월 임시국회선 해병대 순직 등 국조 추진...여당과 힘겨루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장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의 경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의 처리 시한은 내달 22일까지인 정기국회 이후로는 넘기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 후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집중한다는 시간표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없이 30일 본회의의 불가

입장인 여당과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의 개의의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회를 약속한 일정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합이 이 위원장 탄핵 ‘방탄’을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여론전을 벌이는 동시에 개의권을 가진 김 의장의 압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의 개회가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히 오보로, 30일 본회의의 의장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라며 “그날 탄핵안 처리는 이미 의장이 오래전부터 저와 논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가 전날 여야 대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위원장)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아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30일 본회의에 대해 “무조건 열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 국회의장도 이견 열이줄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 정부와 대통령까지 이 난리를 피야 할 일인가”라며 “그 정도로 언론과 방송에 대한 욕망이 크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본회의의 개회를 끝까지 ‘보이콧’할 경우 단독 개최도 불사하겠다는 기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총선 브리핑

### “광주 에너지밸리 산단 분양 저조...대책 시급”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원소장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원소장(전 국토교통부장관)은 23일 “광주시 에너지밸리 산단 내 완공된 도시첨단 국가산단과 연말 준공을 앞둔 일반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한 데다 정주 여건 개선조차 장담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인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주변 사회간접자본(SOC)을 활용해 ‘에너지·물류 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밸리 산단은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변환장치(HVDC)·전력저장장치(ESS) 산업의 집중 육성과 한전과 연계한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복합 산업 분야의 집적화 등 광주 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완공된 도시첨단 국가산단과 연말 준공을 앞둔 일반산단의 분양률은 각각 75%와 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된 기업 중 일부는 정주 여건 개선되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혀 입주 시기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소장은 “현재까지 7개 기업만이 입주한 에너지밸리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에 ‘물류’를 더한 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윤 추구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기업 생리상 2026년 개통 예정인 광주-강진 고속도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인접한 SOC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여야, 행안부 ‘행정망 먹통’ 질타

### 민주 “대통령 사과 없이 평가만”...국힘 “디지털 정부 체면 구겨”

여야가 2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사고 당시 행안위의 대응과 사전예방 시스템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더 거세졌다.

해의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잇따라 행정전산망 먹통에 거

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이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안인데도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책임을 묻어서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행안부는 피해 접수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 더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한다”며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놓고 이번엔 문자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축소, 은폐 하려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용환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왜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중대재해법 유예, 정부 사과·문책 전제돼야”

###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법안 논의를 위한 전제로 정부에 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

정지원 방안, 2년 연장시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을 요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관련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며 “정부가 지난 2년 유예기간 일 처리를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년간 정부가 직무 유기를 한 것인지, 고의로 해태한 것인지 조사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년 유예 시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가지고 오길 바란다”며 “이번 2년 연장을 전제로 했을 때 연장 후에는 반드시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보성서 출판기념회 열고 총선 행보 나서

###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다음달 보성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총선 민심 잡기에 나선다.

문 전 부지사는 12월 10일 오후 3시 보성 다향체육관에서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 29년 간 공직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치 철학과 신념 등을 밝히고 정치 혁신을 위한 활동 방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길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으로, 정치 신인으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부지사는 “전남도와 시·군을 도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분권,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데 29년 간의 행정 경험과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의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문 부지사는 보성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와 조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퇴임할 때까지 29년 간 광주시와 행안부, 전남도를 오간 행정 전문가다. /김지을 기자 dok2000@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m<sup>3</sup>/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원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원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전라남도 JeollaNamdo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증서사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증서사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증서사를 배려하는 실천방법

사회복지증서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반말, 욕설, 희롱, 무시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인가요?

나의 부족한 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